

## The Adventures of Sinbad the Sailor

### 줄거리 요약

오랜 옛날, 바그다드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인 신밧드가 살고 있었다. 허랑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모두 탕진한 그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기 위해 바스라로 떠나는 배에 오른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뱀들이 득실거리는 계곡에서 탈출하고, 식인종 거인에게서 간신히 도망하는가 하면, 거센 풍랑에 휩쓸려 낚선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수차례. 그 때마다 신밧드는 운 좋게 살아남아 집에 돌아오곤 하지만 그는 평안한 삶보다 스릴 넘치는 모험에 이끌려 또 다시 바다로 나선다. 마지막 여행에서 그는 사랑스런 여인 에미라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들은 함께 신밧드의 고향 바그다드로 돌아온다.

### Chapter 1 신밧드의 첫번째 여행

옛날 바그다드에 신밧드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죽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물려 주었습니다. 신밧드는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좋은 옷을 사고 파티를 여느라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두 산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지갑이 텅 비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재산을 탕진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먼저, 그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돈으로 값비싼 비단과 향신료를 사서 부두로 갔습니다. **“우린 바스라로 갈 겁니다. 그런 다음 바다로 나갈 거구요.”** 한 무리의 상인들이 배에 바쁘게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밧드에게 함께 가자고 했고 그는 배에 올라탑니다.

바다에서 한 주를 보낸 후 그들은 모래섬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불을 지피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이 움직인다” “이건 섬이 아니야”** “우린 고래 위에 있는 거야” 선장이 소리치더니 배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래가 꼬리를 움직이며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통에 바다로 팽개쳐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신밧드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나무 상자에 매달려 밤새 떠다녔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멀리 떨어진 섬 해안에 닿았습니다. 말에 올라타 있던 한 남자가 그를 발견하고는 그의 왕 마흐라잔에게 그를 인도했습니다.

신밧드는 왕에게 고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가 한숨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면 널 보살펴주겠다”** 왕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날, 신밧드는 부두를 지키고 있었는데 선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비단과 향신료를 어디서 팔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신밧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생긴 비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비단들은 신밧드라는 상인의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신밧드입니다.”** 신밧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저 안전하게 떠내려 갔었습니다.”** 선장은 신밧드에게 그의 비단과 향신료를 되돌려주었습니다. 좋은 가격에 물건을 판 신밧드는 선장의 배를 타고 바그다드를 향했습니다.

## Chapter 2 역마살

먼저 신바드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역마살이 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물교환할 비단과 향신료를 좀 더 샀습니다. 마음씨 좋은 선장이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성난 바다로 나갔습니다. **“살 맛 나는군!”** 어느 날, 그들은 신선한 물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들렀습니다. 신바드는 그늘이 진 곳에 앉았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한 시간 후 깨어난 그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배가 그를 두고 출발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꼼짝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바드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 섬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커다랗고 하얀 알 하나뿐이었습니다. 신바드가 보고 있을 때,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알 쪽으로 날라와서는 자리 잡고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로크 새가 분명해”** 신바드는 로크새가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새가 그를 구해 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터번을 풀어서 새에게로 몰래 다가가 다리에 자신의 몸을 묶었습니다. 로크 새는 잠에서 깨어나 커다란 날개를 짹 펴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신바드는 구름 위로 높은 창공에 매달려 있었지요. **“꿀꺽!”** 오래지 않아, 로크 새는 계곡을 향해 아래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신바드는 발 아래 땅이 느껴지자 재빨리 자신을 묶을 끈을 풀었습니다. 로크 새는 발톱으로 양을 한 마리 움켜쥐고서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신바드는 절벽의 가파른 부분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았습니다. 계곡은 죽은 양을 보고 혀를 낼름거리며 꿈틀거리는 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바드는 땅에 온갖 보석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보석을 주어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있을 때 사납게 생긴 뱀 한 마리가 배고픈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바드는 몸을 굽혔습니다. 그가 그곳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머리 위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로크 새를 보자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재빨리, 그는 자신의 몸에 양 한 마리를 묶은 다음 기다렸습니다. 곧바로 로크 새가 뿔 날아 내려와 발톱으로 양을 낚아챘습니다. 로크 새는 아래 신바드를 끈 채 계곡을 빠져 나왔습니다. 로크 새는 절벽에 착륙했습니다. 그가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한 무리의 남자들이 새를 쫓아버렸습니다. **“형님”**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 양털에는 보석이 붙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그들은 신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계곡에서 빠져 나온 데 대해 모두들 놀라워 했습니다. 얼마간 보석을 받은 그들은 신바드를 바그다드로 향하는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Chapter 3 욕심쟁이 거인**

또 한번, 신바드는 집에 돌아오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보석 주머니를 팔아 비단과 향신료를 샀습니다. 그의 세 번째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땅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키가 작고 못생긴 털복숭이 사내들이 배를 습격해왔습니다. 차례로 그 털복숭이들은 상인들을 배 밖으로 집어 던진 다음 배를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감히 우리 배를 빼앗다니!”** 이 불쌍한 상인들은 해변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들은 낮선 해변을 둘러보다가 단지와 딸감이 가득한 안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뜰의 주인은 누군가가 찾아오면 입맛을 다니는 욕심쟁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깜빡 하기도 전에 가는 뚱뚱한 상인 하나를 불에 구워버렸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거인은 하나뿐인 출입구를 막고 잠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신바드가 속삭였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면 딸감으로 뗏목을 만들어 탈출하도록 해요”** 새벽이 되자 거인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키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인들은 딸감을 덩굴로 한 데 묶어놓은 해안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들이 해안에서부터 뗏목을 띄우고 있을 때 커다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거인이 뗏목을 향해 바위덩이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악!”** 대부분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신바드와 다른 두 사람은 운 좋게 살아 남았습니다. 그들은 통나무에 매달린 채 살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 모두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온통 돌로 뒤덮인 해안으로 떠밀려가 커다란 뱀이 자신들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뱀은 그 세 명을 쳐다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서는 신바드의 동료 둘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나는 너무 말랐어”** 신바드는 뱀이 미끄러지듯 사라질 때까지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도착하기를 기도하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드디어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가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만났던 바로 그 선장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무인도에 버려두고 떠났었죠.”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일주일 만에 배 지나기도 전에 신바드는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Chapter 4 사람들**

“또 다시 집에 돌아왔군!” 신바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래지 않아 시장으로 가서 비단과 향신료를 샀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의 배에 올랐고 물건들을 항구에서 항구로 팔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바닷물이 갑판에 까지 밀려들어와 배를 산산 조각 냈습니다. 신바드와 다른 7명의 상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달리 운 좋게 살아 남았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돛대에 매달린 채 멀리 떨어진 해안까지 밀려왔습니다. 섬 주민 몇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의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환영하오” 왕이 말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해주시오” “맛있다!” 신바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배가 고프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삼키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끔찍하게도, 굶주린 이 사람들은 모두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어대는 동물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먹는 걸 당장 멈춰!” 신바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신바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섬 주민은 신바드의 친구들을 몰아 문을 통과해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신바드는 캄캄한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궁전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 무리를 곧장 달려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섬의 반대편에 도착해서야 드디어 멈춰 섰습니다. **“돛이 보인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 한 척이 해안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손을 막 휘둘렀고 선장도 그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신바드는 또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Chapter 5 로크 새의 복수**

수 많은 모험을 경험한 신바드로서는 집에서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항구에서 멋지게 생긴 배 한 척을 보고는 그 배를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배를 비단과 향료로 채우고서는 열성적인 선원들을 고용해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또 다른 로크 새의 알이 있었습니다. 몇몇 선원들은 호기심에 그 알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알이 얼마나 단단한 지 시험해 보려고 돌을 던져댔습니다. 돌을 50개쯤 집어 던졌을까, 껍질이 깨졌습니다. “머저리 같은 녀석들! 신바드가 소리쳤습니다. “어미 로크 새가 복수하려 할거야” 그들이 항해해 가는 동안 어두운 형체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바로 로크 새였습니다. 그 새는 커다란 바위를 배를 향해 떨어뜨렸고 신바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다에서 숨졌습니다. 다시 또 한번 그는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숲이 무성한 섬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가에 잠깐 멈췄을 때, 그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괴물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바드는 괴물을 도와 시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에 도착해서도 괴물은 신바드의 어깨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는 오히려 신바드의 목을 더 꼭 붙들었습니다. 며칠동안 신바드는 괴물에게 잡힌 죄수 신세였습니다. 신바드는 지칠 때까지 괴물을 업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괴물은 신바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고 병을 낚아챘습니다. 괴물은 와인을 벌컥 벌컥 들이키더니 곧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트림 끝에 괴물은 땅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신바드는 잼싸게 도망쳤고 바구니를 들고 가는 사람을 몇 만났습니다. “바그다드로 가게 도와주시겠소?” 그는 쫓기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코코넛 모으는 걸 도와준다면 그렇게 하리다” 대머리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오?” 야자수 숲으로 가는 그 무리를 따라가며 신바드가 궁금해했습니다. 나무들 마다 원숭이들이 껍뻑대고 있었습니다. “잘 보라구!”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돌맹이 하나를 주워서 원숭이에게 던졌습니다. 원숭이는 매우 화가나서 그 남자에게 코코넛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봐! 내가 맞을 뻔 했잖아!”** 순식간에 모든 원숭이들이 코코넛을 집어 던져 댔습니다. 신바드는 험사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충분한 양의 코코넛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Chapter 6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다**

잠시 후, 신바드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몇 사람의 상인이 그를 찾아와서 들려준 그들의 여행담을 듣고 신바드는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나 항구를 전전하며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고요하고 기분 좋은 저녁이군”** 그러던 어느 날 밤, 배가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구도 앞에 놓인 날카로운 바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배는 조각조각 부서져 버렸고 오직 신바드와 다른 네 사람만이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위투성이 섬을 꼭대기에서 땅 아래까지 살펴봤지만 바위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굶어 죽어갔습니다. **“도와줘! 다음은 나야!”** 머지 않아 신바드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외로워하며 강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은 바다가 아닌 동굴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바드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뗏목을 만들어야겠어”** 그가 생각했습니다. **“강물이 나를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길 바라야지”** 강바닥은 보석들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물에 떠내려 가기 전 몇 종의 보석을 챙겼습니다. 그의 뗏목이 동굴로 미끄러져 들어가 속력을 내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신바드가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쉼쉼 거리는 물소리 뿐이었습니다. 그의 운이 다한 것일까요? 다음 번에 그가 본 것은 그가 햇빛이 비치는 강둑에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기 위해 눈을 들었습니다. **“살아있어!” “부자인걸!”** 지방 상인이 신바드에게 얼마간의 음식을 주었고, 보석들을 받고는 그를 바그다드로 가는 배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Chapter 7 마지막 여행**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져온 보석으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신바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너무 늙어 여행을 꿈도 못꾸겠지”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상선을 타고 중국해를 지나다가 험난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집채만한 고래가 파도를 뚫고 요동쳤습니다. 배에 가까이 온 고래는 거대한 입을 열고 한 입에 배를 집어 삼켰습니다. 운 좋게도 신바드는 제 시간에 배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잦아들자 그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해변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이번에도 구사 일생으로 살았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가 이국적인 숲 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그는 동굴로 이어지는 강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좋았어! 뗏목을 다시 만들 수 있겠다” 신바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은 어둠을 지나 가파른 폭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커다란 고기군”** 갑자기 그는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놀란 한 늙은이가 망으로 그를 낚은 것이었습니다. “몸을 좀 말려야 겠군요” 그 노인을 이렇게 말하며 신바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은 딸 에미라에게 갈아 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바드는 그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제껏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에미라의 아버지는 신바드가 매력 있는 젊은이라 생각해 그의 집에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에미라와 신바드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에미라 아버지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년 후 에미라의 아버지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와 신바드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항해를 떠나는 게 어떨겠소?” 신바드가 말했습니다. “내다 팔 비단과 향신료를 살 수 있을 텐데” “오, 좋아요!” 항상 여행을 하고 싶어했던 에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몇 개월을 보낸 후 그들은 바그다드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멋진 도시로군요!” 에미라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럴지 않소!” 신바드가 동조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매우 기뻐했습니다... 적어도 얼마간은 말이죠.